

주민 반발에 패밀리랜드 시설 개선 난항

“65m 회전관람차 사생활·조망권 침해 우려” 민원 제기
업체 “지붕만 보이고 식별 불가”…사업소 “허가조건 충족”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공원 유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광주패밀리랜드가 올 들어 수십억여원을 들여 낡은 놀이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등 유원지 시설 개선사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놀이공원의 랜드마크’로 설치기로 한 65m높이의 회전관람차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 유원시설 개선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광주시 우치공원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5년간 우치공원 유원시설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주)광주패밀리랜드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노후화한 놀이기구 교체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유아용 놀이기구 3종을 새롭게 설치하고 500여 평의 상가를 리모델링했으며, 시계탑 광장에는 놀이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회전관람차를 오는 6월까지 20억여 원을 들여 새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원지 인근 생룡동 지내마을 주민들이 “지난 1992년 유원지 개장 당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왔는데 또다시 마을 앞에 회전관람차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에 고충 민원을 접수한 지내마을 주민 범모(54)씨는 광주시에 제출한 탄원

서에서 “회전관람차를 설치하는 곳이 마을에서 2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관람차에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패밀리랜드가 처음 개장한 날부터 놀이기구 소리, 동물 울음소리 등 소음공해가 심했지만 피해를 참아왔는데 이제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까지 한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원시설을 관리하는 광주시우치공원사업소는 “회전관람차 설치하는 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회전관람차에서 마을 방향이 보이지 않도록 유리창에 차단필름을 부착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하는 등 주민 민원에 적극 대처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주)광주패밀리랜드 측은 이에 대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며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해

서는 드론을 띄워 5~70m까지 각 높이별로 자료 사진을 찍어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치공원사업소는 이와 관련 “드론을 이용한 촬영사진을 확인한 결과 낮은 높이에서는 우치공원 조성 당시 차폐용으로 심어놓은 메타세콰이아 나무에 주택이 가려져 보이지 않고, 40m 이상의 높이에서는 마을 주택의 지붕만 보이고 육안으로는 집안 내부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회전관람차 설치 허가 과정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광주시에 3차례 걸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광주패밀리랜드 측의 회전관람차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AI 농가서 새끼오리 분양받은 무안 농장도 AI 발생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오리농장 부화장에서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다른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몽탄면 한 오리농장에서 지난 12일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농장은 지난 9일 AI가 발생한 강진군 성전면 오리농장 부화장에서 부화한 새끼 오리 1만 마리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전 부화장에서는 영암 3개 농장에 7만4100마리, 무안 2개 농장에 2만7200마리 새끼 오리를 분양했다.

방역 당국은 5개 농장에서 입식한 새끼 오리 10만13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지인 강진은 물론 영암과 무안까지 1주일간 가금농가 이동중지 조치를 했다.

3일까지 전남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26건의 AI가 발생해 90농가 171만9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윤희석기자chadol@kwangju.co.kr



계란 판매점 점검

1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경제정책과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두암동의 한 계란 판매점에서 위생 상태와 불법유통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소화기의 힘…변두리 농가 큰불 막았다

광주 대지동 마을주민도 소화기 들고 합세 신속 진화

광주 변두리 한 농가에서 불이 났다. 외딴 곳으로 소방서와는 11km가량 떨어져 있다. 소방차가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7분가량 소요되는 곳이다. 그 시간이면 농가는 모두 타고 만다.

하지만 이 농가는 본채 옆에 붙어있는 창고 일부분 그을렸을 뿐이다. ‘소화기의

힘’이었다.

광주남부소방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50분께 남구 대지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집에는 개교기념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은 대광여고 2학년 송모(18)양과 송양의 아버지가 있었다.

집안에 있던 송양은 어디선가 타는 냄새

가 맡고 주위를 살폈다. 창고 옆에 쌓여둔 폐자재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한 그는 “불이야”라고 외쳤다. 그러자 송양의 아버지가 집안에 비치해둔 소화기를 꺼내와 불을 끄기 시작했다. 불이 본채로 옮겨붙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송양은 여고생이지만 침착하게 수건에 물을 적서 아버지의 입과 자신의 입을 가리고 소화기를 들었다. “불이야, 불이야”라는 송양의 외침과 연기를 본 마을 주민들도 각자 집에서 소화기를 들고 합세했다. 6개의 소화기에서는 하얀 분말이 쏟아

졌고, 불길은 잡혔다.

119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거의 진화된 상태였다. 재산피해도 창고와 본채 일부분 그을렸을 뿐이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광주남부소방 관계자는 “주택화재의 경우 소화기 역할은 중요하다”며 “이번 화재는 소방서로부터 11km가량 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탄핵 불동…예비군은 괴로워

정치적 오해 막으려 대선 전 23일간 훈련 금지
일정 변경 따라절기 놓치고 ‘혹서기 훈련’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동이 예비군들에게도 뒤였다. 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서기 동원훈련을 실시해야 할 상황까지도 우려된다.

13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은 3만명이다. 이들은 국방부의 훈련 일정에 따라 해당 군부대에 소집돼 2박3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군 제대후 4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이 끝나면 2년간은 향방훈련을 받는다. 전역 5~6년차로 주로 동사무소에 있는 동대로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다.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을 합친 광주·전남지역 예비군은 4만5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는 270만여명 가량이다.

훈련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가 9개월간이다. 하지만 혹서기(7월말~8월중순)에는 건강 우려 탓에 훈련을 자제하고 있다. 실제 훈련기간은 8개월인 셈이다.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 때문에 예비군 훈련 기간이 한 달 가량 다시 줄었다. 예비군법에 따라 공식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군법 제6조에는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

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23일간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5월9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4월17일부터 예비군 훈련은 중지된다. 이는 예비군 동원에 따른 정치적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훈련 일정을 변경해야 하고, 훈련기간도 한 달가량 줄면서 넘쳐나는 훈련생들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 김모(29)씨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한 달 가량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올해 유독 보충훈련자가 많은데 훈련 일정까지 줄어들어 군당국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줄어드는 기간 내에 예비군훈련을 모두 끝내야 하는 탓에 동원훈련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답답해 했다”고 전했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선거일이 확정돼야 국방부와 각 군부대에서 동원훈련 일정 변경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광주·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아직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광산구에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광주 광산구에도 건립될 예정이다.

참좋은 광산포럼은 세계 위안부의 날인 오는 8월14일 소녀상 제막식을 목표로 건립 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광산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달 공식 출범식 겸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녀상 건립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단체들과 연대, 추진위원장과 대표단을 선임한 뒤 소녀상 건립 장소와 제작 형태, 제작 비용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건립 후보지는 광주송정역, 수완호수공원, 어등산 주변 등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우울증 30대 ‘火폭기’…쓰레기터미에 9차례 불 질러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목포시 상동사가 주변 쓰레기터미 등에 무려 9차례나 불을 놓은 30대 남성 이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 신세.

○…13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지난 11일 새벽 12시44분께 목포시 상동의 한 반찬가게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단지, 상가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 등에 9차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는 것.

○…불은 주민에게 재빨리 발견돼 소화되거나 저절로 꺼지면서 큰 불로는 연결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붙잡힌 김씨가 “우울증 때문에 불을 지르면 스트레스가 풀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수사.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싸고, 투자,가치있는물건, 사정상 매매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0 - 1번지 - 114평
- 1260 - 2 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까지 최고
- 매매 - 평당 35만원

나주,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돌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